

“민속예술 맥 잇기 위해 보존회 구성해야”

‘고성명태바리 소리’ 연출로 최우수상 수상 기여 … 벌써부터 차기작품 구상 중

사라져가는 민속예술 발굴 앞장 곽상록씨

‘어아디야 어기여차 어아디야 어기여차 저어라보자 어기여차 얼른저어라 어기여차 우리 고향에 어기여차 빨리가자 어기여차.’

지난달 28~29일까지 정선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성명태바리 소리’의 첫째마당인 ‘노젓는 소리와 그물내리는 소리’의 도입 부분이다.

고성명태바리 소리를 연출(지도)한 곽상록씨(56세, 사진)는 “그물과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바다에 나가 명태를 잡고, 항구로 돌아와 명태를 손질하고, 덕장에 말리는 과정을 표현했다”며 “준비기간이 짧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지도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기수, 선소리, 풍물패, 뚝단배1, 뚝단배2, 지게, 물동이, 선원 등의 배역을 정하고, 손동식씨(거진읍 거진4리) 등 여러 주민들을 만나 소리를 녹취해 단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완성된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성명태바리 소리는 내년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다. 곽씨는 “전국대회에는 인원을 더 보충하고 소리도 좀 더 강하게 할 계획”이라며 “지금부터 한달에 2회 정도 연습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현진 출신인 곽씨는 이번 대회 이전에도 지난 2007과 2008년 2회 연속 ‘공현진 곱바위 미역따기’라는 작품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전시키는 등 전통민

속 발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내년 전국대회 준비와 함께 벌써부터 차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그는 “과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나무하러 다니면서 부르던 소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곽씨가 이처럼 민속예술 발굴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성원 때문이다. 부인 함정옥씨(55세)와 1녀를 둔 그는 “가족들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줘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부인과 딸 곽현지(고성중 3년)양은 공현진 곱바위 미역따기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선소리를 한 서재호 어르신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 소리가 끊긴다고 봐야한다”며 “소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존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태극마크 달고 세계무대에서 뛰고 싶어요”

현내 출신 이세정 전국체전 금·동 … 2008년 3천m 장애물 한국신

“앞으로 꾸준히 운동에 매진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무대에서 뛰고 싶어요”

현내면 출신 이세정(23세, 강원도청 소속, 사진)이 지난 12일 막을 내린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육상트랙 여자 일반부 부문 3천m 장애물경기와 1,500m경기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이세정은 지난 11일 열린 3천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 32초 1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에 앞서 9일 1,500m 경기에서는 4분 29초 9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이세정은 육상 중·장거리 부문에서 이번 대회뿐 아니라 지난 대회에서도 이미

수많은 메달을 획득했고, 특히 3천m 장애물 경기에서는 여러 번 금메달을 획득해 이 종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진초등학교 4학년 시절 육상에 처음으로 입문한 그녀는 “그냥 달리기가 좋아



서 친구들과 시합을 하곤 했는데 제가 항상 1등을 했었다”며 “이후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세정은 대진중을 거쳐 속초여고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속초여고 시절 800m, 1,500m, 5천m 구간 마라톤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다량의 메달을 획득하며 중·장거리 종목에서 명실상부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강원도청으로 스카웃 돼 활약하던 중 2008년에는 전국종별육상대회 3천m 장애물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워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원광연 기자



언약의 상징 무지개

지역 곳곳에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군 건립 확정’ 경축 플래카드가 내걸린 뒤, 지난 2007년 골조공사를 60%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거진읍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새벽 무지개가 펼쳐졌다.

무지개는 확실한 언약(약속)을 상징한다. 주민들은 이 무지개처럼 의정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사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거진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스마트폰>

장공순 시민기자